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이영애** · 정현희***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5년의 시기 동안 학교적응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자아탄력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감독 그리고 성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5년의 시기 동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초기치에는 자아탄력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변화율에서는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 부모-자녀관계 및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변화율에서는 내재화 문제, 부모-자녀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초기치에 있어서는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순이었고, 변화율에 있어서는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함의를 논의하고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적응, 잠재성장모형, 자아탄력성,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

* 이 논문은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교신저자, leevivian@hanmail.net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 론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까지의 학령인구 중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96.1%)와 퇴학(2.9%)이 대부분이었으며,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학업관련, 학교규칙, 대인관계, 기타 부적응)이 49.6%로 가장 많았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늘어나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관련 기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대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적응 관련 연구에 의하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축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학교폭력,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과 같은 비행 등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김종범, 2009; 유인선, 2011; Reichman, Bowen & Woolley, 2004). 한편,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은 생애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발달과제의 하나로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좌우하는 결정인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 1998; Crosnoe & Elder, 2004).

학교적응에 관한 개념적 정의부터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상이하기에 이에 관한 경험적 측정도 기존의 연구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학업성취나 학업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하여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신형진, 김규원, 2014). 이규미와 김명식(2008)은 학교적응 척도를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그리고 학교생활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5)에서는 학교적응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이들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정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가치와 추구 정도,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교적응은 여러 측면에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연구경향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개인적 특성, 부모 및 가족요인, 그리고 교사 및 학교친구 등의

학교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 여러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박성혜, 윤종희, 2013; 박은영, 2011; 이귀옥, 이미리, 2013; 이지연, 정익중, 백종립, 2014; 오승환, 2009; 양숙경, 문혁준, 2009; 조호운, 서수현, 이승희, 김재철, 2014; Millings, Buck, Montgomery, Spears & Stallard, 2012; Roeser, Eccles & Sameroff, 2000). 이들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 혹은 연령의 한 시점에서 학교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음,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을 확인한 연구경향을 들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학교적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이희정, 조운주, 2010; Reddy, Rohdes & Mulhall, 2003),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시기까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학교적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균, 2008; 문은식, 2003; 이희정, 2015; 좌현숙, 2012).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적응의 변화율에서 여학생의 경우 학교적응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영향이 있었고, 청소년 학교 부적응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발달궤적을 보였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백혜정, 2007; 이경상, 2011; 황성혜, 2010; Danielsen, 2009). 최근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아동 및 청소년 패널조사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종단연구들이 가능해지면서 특히 안정성과 변화율을 분석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변화양상과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종래의 분석방법들이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좌현숙, 2012).

앞서 언급된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학교적응 변화의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는데 이들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및 가족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교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은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자기신뢰, 성별이었으며, 가족관련 요인은 부모감독, 부모애착 등 이었으며, 학교관련 요인은 학교친구애착과 교사애착으로 보고되었다(이희정, 2015; 이희정, 조운주, 2010;

좌현숙, 2012). 이들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은 단일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적 특성, 부모 및 가족 그리고 학교라는 다차원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최초 측정시점, 성별 및 측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들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관한 또 하나의 연구경향으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전환기에 놓여 있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종단자료를 사용한 서미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증가하였고, 성별과 학업성취감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초기 청소년의 우울, 불안 등의 심리내적 증상은 점차 증가하였고, 부모애착과 정서조절은 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정서조절은 심리내적 증상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Dekker et al, 2007).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재화 문제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및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철, 최지영, 2010; 좌현숙, 변귀연, 2010). 노연경과 홍세희(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우울 변화에 4개의 잠재계층을 확인하였고, 이들 잠재계층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성별,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급격한 신체·생리적 변화와 아울러 인지적 발달, 자기개념 및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동시에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정현희, 2003),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학교적응의 어려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엄선영, 이강이, 2012; Akos, 2002; Ge, Conger & Elder, 2001; Midgley, 2002; Roeser, Marachi & Gelbach, 2002; Schonert-Reichl & Muller, 1996; Schumacher, 1998). 이는 전환기를 경험하는 초기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촉진하고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내적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 공격성, 자아탄력성 등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자녀관계, 부모양육태도 및 가족 응집성 등의 부모 및 가족요인을 함께 고려한 관계구조 및 매개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경향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은 초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이귀옥, 이미리, 2013), 낮은 학업 성적, 주의집중,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및 숙제에 대한 부담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lójd et al, 2008).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였으며,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종운, 최미숙, 2014;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이명순, 김종운, 2014; 한신애, 문수백, 2011). 또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관계 구조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감소하고, 공격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송수지, 2014; 이희은, 문수백, 2011; 장신재, 양혜원, 2007).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간에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부모의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Buist, Dekovic', Meeus & Aken, 2004)들을 통해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에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활동과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고 있는 양육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감독이 부족할 때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였고(황성혜, 2010; Laird, Jordan, Dodge, Pettit & Bates, 2001;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부모의 감독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좌현숙, 2012). 이들 선행연구 결과들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등의 개인적 특성과 아울러 초기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적 맥락인 부모 및 가족 요인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한 것으로 특정시점에 국한된 횡단적 연구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경향과 연구결과들이 주는 함의 그리고 제한점에 대한 탐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변화과정을 경험하며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적응 또는 부적응과 관련된 발달산물은 성장과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특정 시점에서의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는 기여하였으나(좌현숙, 2010),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패널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개인적 요인, 부모 및 가족 요인으로 분류하여 검증한 종단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이 포괄적이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초기 청소년 학교적응의 발달단계는 어떠한 변인들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결과가 누적된 것이 아니므로 대상과 측정시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소년이 성장하고 발달해감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맥락들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마다 상이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적, 상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청소년 발달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결과들과 초기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환경적 맥락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요인과 부모 및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성별,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자아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부모의 감독을 관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의 시간에 따른 학교적응의 발달단계를 파악하고, 성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자아탄력성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관계의 부모 및 가족요인이 학교적응의 발달단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초4 패널조사의 5개년 동안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학교적응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인적 요인(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및 성별), 부모 및 가족 요인(부모-자녀관계, 부모의 감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4 패널조사 1차년도(2010년)에서 5차년도(2014년)까지의 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례 수는 2378명이었으나, 설문지 전체에 응답하지 않은 177명을 제외한 2201명(남자: 1045명, 여자: 1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2010년(1차년도)부터 2014년(5차년도)까지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으며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교우관계 5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1차년도 .88, 2차년도 .87, 3차년도 .89, 4차년도 .89, 5차년도 .88이었다.

2) 독립변인

다음의 변인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초4 패널조사(2010년)의 최초 시점에 각각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와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권지은, 2003 재인용)한 척도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조사한 자료이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2이었다.

(2) 내재화 문제

내재화 문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신체증상 8문항, 사회적 위축 5문항, 우울 8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었다.

(3) 외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을 측정한 6문항으로 하였다. 이 공격성 척도는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토대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자료이다. 이들 문항들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4) 부모의 감독

부모의 감독은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중에서 부모의 감독 3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원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사용한 척도이다. 각 문항들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활동과 적응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5)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 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중에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양육방식을 측정한 문항 중 애정적 양육 4문항, 합리적 설명 3문항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4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부모-자녀 관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85이었다.

(6) 성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되었으나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여자는 0, 남자는 1로 재부호화 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발달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5년간의 종단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SPSS 21.0을,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에는 AMOS 21.0을 사용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결측치의 패턴을 고려하여 모집단의 성격을 추정하므로 무작위 결측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들보다 더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문수백, 2013).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 2와 같다. 이들 모형에서 학교적응 1차, 2차, 3차, 4차, 5차는 반복 측정된 5개의 관찰변인을 나타낸다. 초기값(intercept)은 절편을 나타내며 관찰변인으로부터 측정되는 잠재변인으로 초기상태를 나타낸다. 변화율(slope)은 기울기를 나타내며 5개의 관찰변인으로부터 추정된 잠재변인으로서 학교적응 1차에서 5차에 걸쳐 일어난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연구모형에 기초한 자료 분석은 두 단계

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로 학교적응의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은 무변화 모형으로 5년간 학교적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를 가정한 모형이다. 모형 2는 선형변화 모형으로 변화율의 측정회기별 요인계수에 0, 1, 2, 3, 4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조건 모형을 통해 학교적응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투입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모형 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χ^2 외에 CFI, RMSEA, EVIC를 함께 사용하였다. CF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 EVIC는 적을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문수백,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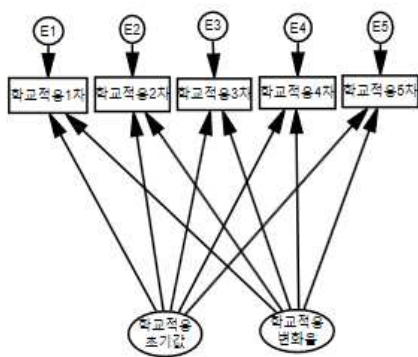


그림 1. 무조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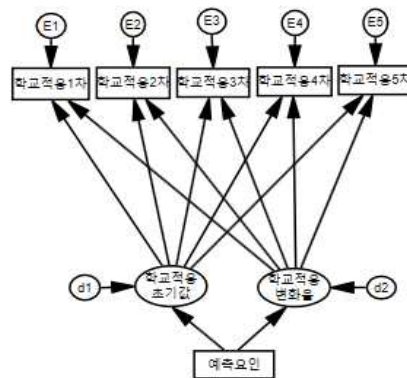


그림 2. 조건 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상관 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인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4 미만으로(문수백, 2013)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학교적응1차										
학교적응2차	.51**									
학교적응3차	.37**	.47**								
학교적응4차	.31**	.37**	.45**							
학교적응5차	.32**	.34**	.41**	.53**						
자아탄력성	.59**	.38**	.27**	.22**	.24**					
내재화문제	-.17**	-.19**	-.31**	-.25**	-.23**	-.16**				
외현화문제	-.20**	-.22**	-.32**	-.23**	-.23**	-.10**	.54**			
부모감독	.48**	.32**	.27**	.25**	.23**	.49**	-.15**	-.11**		
부모자녀관계	.41**	.30**	.23**	.19**	.20**	.40**	-.13**	-.10**	.50**	
성별	-.22**	-.17**	-.03	.03	-.01	-.07**	-.13**	.03	-.10**	-.16**
평균	3.09	3.05	3.01	2.99	2.96	3.02	1.84	2.03	3.35	3.23
표준편차	.42	.44	.44	.43	.39	.49	.56	.61	.64	.59
왜도	-.40	-.44	-.33	.01	.23	-.32	.42	.25	-1.08	-.77
첨도	.17	.79	.79	.57	.43	.03	-.16	.11	1.06	.43

1. 학교적응1차 2. 학교적응2차 3. 학교적응3차 4. 학교적응4차 5. 학교적응5차 6. 자아탄력성
7. 내재화문제 8. 외현화문제 9. 부모감독 10. 부모자녀관계 11. 성별(남자=1, 여자=0)

* $p<.05$, ** $p<.01$, *** $p<.001$

학교적응의 평균은 1차년도에서 5차년도로 진행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학교적응과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관계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성별과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서 정적 상관을, 3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 양상

학교적응의 5년간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으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NPAR	$\chi^2(df)$	CMIN/DF	CFI	RMSEA(LO90/HI90)	EVIC
무변화 모형	11	281,203(9)	31.245	.897	.117(.106 / .129)	.138
선형변화 모형	6	160,659(14)	11.476	.945	.069(.60 / .079)	.078

무변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과 비교할 때 χ^2 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 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χ^2 값이 줄었고($\Delta\chi^2=121.544(5)$), CFI는 .048, RMSEA는 .048이 향상되어 적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선형변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선형변화 모형에 기초한 학교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교적응의 잠재성장 모형 추정치

	평균	분산
초기값	3.084***	.101***
변화율	-.032***	.005***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011***	
초기값-변화율 상관계수	-.488	

*** $p<.001$

학교적응의 초기값은 평균 3.084($p<.001$), 분산 .101($p<.0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인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적응의 평균값이

3.084이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초기값이 개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적응 변화율의 평균은 $-.032(p<.001)$ 로 학교적응의 변화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갈수록 $-.032$ 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5년의 기간 동안 점차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변화율의 분산은 $.005(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적응의 5년간 변화율은 개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교적응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은 $-.011(p<.001)$ 이고, 표준화된 상관계수는 $r=-.488$ 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때 학교적응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적응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첫째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교적응이 높았던 청소년들이 5년의 기간에 걸쳐 학교적응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첫째에 학교적응이 낮았던 청소년들이 5년의 기간에 걸쳐 학교적응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에 학교적응이 낮았던 청소년들의 평균값이 낮기 때문에 완만한 변화율을 갖는 바닥효과(floo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황성혜, 2010).

3. 학교적응 종단적 변화의 예측요인

자아탄력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성별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인을 조건모형에 투입하여 학교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NPAR=38, $\chi^2(df=484, 593(39))$, CMIN/DF=12.425, CFI=.933, RMSEA(LO90/HI90)=.072(.066/.078), EVIC=.255].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초기값($\beta=-.213, p<.001$)와 변화율($\beta=.321, p<.00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의 초기값이 높았고 변화율의 감소속도는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학교적응 감소 속도가 빠른 것은 여학생의 학교적응 초기값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감소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교적응의 초기값과 5년간 변화된 학교적응의 정도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

	초기값		변화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성별	-.213***	-.129	.321***	.044
자아탄력성	.508***	.314	-.490***	-.068
내재화 문제	-.066**	-.036	-.150***	-.018
외현화 문제	-.189***	-.094	-.025	-.003
부모감독	.150***	.072	-.077	-.008
부모-자녀관계	.229***	.118	-.093*	-.011

* $p < .05$, ** $p < .01$, *** $p < .001$

자아탄력성은 초기값($\beta = .314$, $p < .001$)와 변화율($\beta = -.068$, $p < .00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높아지고 변화율의 감소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는 초기값($\beta = -.036$, $p < .001$)와 변화율($\beta = -.018$, $p < .00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낮아지고 변화율의 감소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감소 속도가 완만한 것은 내재화 문제가 높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초기값은 낮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현화 문제는 초기값($\beta = -.094$,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율($\beta = -.003$)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초기값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감독은 초기값($\beta = .072$,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율($\beta = -.008$)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초기값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관계는 초기값($\beta = .229$, $p < .001$)와 변화율($\beta = -.011$, $p < .001$)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높아지고 변화율의 감소 속도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의 시기 동안 학교적응의 변화양상 규명하고, 개인적 요인(성별,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부모 및 가족요인(부모의 감독, 부모-자녀 관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적응의 변화 양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초기치에 대해서는 성별,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문제,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의 감독이었고, 변화율에 대해서는 성별, 자아탄력성, 내재화 문제 및 부모-자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설정한 연구문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적응의 변화 양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지의 연구문제 1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한 결과 학교적응은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희정과 조현주(2010)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교적응 변화는 감소의 양상을 나타내었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감소의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희정과 조현주(2010)의 연구는 학교적응 측정에 있어 10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의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교적응 척도와 상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학교적응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낮아진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Chung, Elias & Schneider, 1998; Diemert, 1992; Fenzel, 2000; 유순화, 2007). 이들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학업성적이 강조되고 경쟁이 증가하게 되면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전환기의 학교적응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희정, 조윤주, 2010).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의 발달궤적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학교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발달궤적을 나타내었고(이희정, 2015; 좌현숙, 2012), 조미형과

이정은(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중학교 2학년에 중학교 3학년 까지 증가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혔고, 학교급별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문은식(2003)의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집단에서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결과와 일부 불일치한 면이 있는데 이는 중학생은 고등학생처럼 입시위주교육, 진학관련 스트레스,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의욕 저하를 덜 경험하고, 학교 급별과 연령에 따른 학교진학 과정, 학습에 대한 기대 및 관계적 측면의 성숙요인 그리고 측정 방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적응은 시간변화에 따라 변화양상이 달라지고 초기 수준과 변화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청소년은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청소년은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초기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유형별 집단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에 대한 연구문제 2의 결과를 각각의 변인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학교적응 초기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여학생의 학교적응 변화율은 5년의 기간 동안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의 초기치에서 성별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화율에서 여학생의 경우에 학교적응의 감소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영향이 있음을 밝힌 이희정과 조윤주(2012)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나 부분적으로 상이한 결과는 학교적응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는 만큼 추후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별의 효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초기수준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증가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5년의 기간 동안 학교적응의 감소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적응을 잘하고(김연홍, 성경주, 2014; 양숙경, 문혁준, 2009), 자아탄력성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작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며(한신애, 문수백, 2011),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등의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밝힌 구조관계 분석 결과(김중운, 최미숙, 2014;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이명순, 김중운,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좌절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심리내적인 자원으로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고 학교 내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학교와 사회적응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내적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개입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높이고 관계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서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위험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부적응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재화 문제는 학교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내재화 문제는 증가하는 발달궤적을 나타내었고, 학교적응은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난 결과(좌현숙, 변귀연, 2010; 좌현숙, 오승환, 2011),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내적 증상은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밝힌 결과(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서미정, 2008)와 맥락을 같이 한다. 흔히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겁이 많으며,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며 우울한 모습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며 자신감도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발산하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과 다르게 자신이 위축되거나 불안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나 교사가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내재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현화 문제는 학교적응 초기값에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외현화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초기 수준이 낮았던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5년 동안 수집한 종단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외현적 공격성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재철, 최지영, 2010)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강지현(2014)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4년의 기간 동안 외현화 문제는 증가하고 남학생이 초기값이 더 높고 여학생의 변화율 속도

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관련지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공격성이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횡단적 연구결과(오승환, 2009)와 일치한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는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 척도가 공격적 사고나 충동을 개념화한 척도로 관계적 공격행동이나 비행행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나 비행행동이 자연영화 되는 경향이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의 관계적 공격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행동이나 비행행동을 포함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치에 있어서는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순이었으나, 변화율에 있어서는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외현화 문제는 여학생이 초기치가 더 높고 여학생의 변화율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결과(강지현, 2014),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에 걸쳐 내재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외현화 문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결과(Gilliom & Shaw, 2004)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들 결과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변인으로 공격성, 우울 등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박성연, 강지훈, 2005; 이정윤, 이정아, 2004)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으로 언급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수준 정도는 학교적응을 방해하고 부적응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심리내적 위험요인들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공동발달에 관한 인과적 방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결과는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고,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의 변화 간에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Keily, Bates, Dodge & Pettit, 2000). Patterson과 Capaldi(1990)는 실패모델에 기초하여 외현화 문제는 종종 내재화 문제에 선행한다고 전제하면서 외현화 문제는 사회적 발달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인과적 영향에 의한 공동발달이 학교적응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부모의 감독은 학교적응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5년의 기간 동안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양상을 밝힌 연구를 통해 부모의 감독은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한 결과(좌현숙, 2012),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5년의 기간 동안 부모의 감독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부적응의 초기치가 낮았으나, 학교부적응의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황성혜, 2010)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부모의 감독이 학교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대한 이유를 탐색해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규모 데이터의 특성상 적은 수의 문항으로 변수를 측정할 한계에서 기인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환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높으면 오히려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박정현, 이미숙, 2014). 이러한 측면은 전환기에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촉진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독립에 대한 욕구로 인해 부모의 감독을 흔히 그들에 대한 보호나 관심보다는 간섭이나 통제의 의미로 지각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이회정과 조윤주(2010)의 연구결과,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우울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결과(장신재, 양혜원, 2007)와 일치하고, 학교적응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애착 그리고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Vieno & Nation, 2009).

끝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변화율에서는 내재화 문제, 부모-자녀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우울은 감소하고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장신재, 양혜원, 2007),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밝힌 결과(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이명순, 김종운, 2014; 김종운, 최미숙, 2014), 그리고 초

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 것으로 보고한 관계구조 및 영향력 분석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한신애, 문수백, 2011).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성격 체계의 능력으로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삶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 한다는 점(Block & Kremen, 1996)에서 적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감독, 가족응집성 및 부모양육태도 등의 부모 및 가족요인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작간접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와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작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환기에 있는 초기 청소년의 낮은 자아탄력성은 새로운 경험을 불안해하고 융통성 있게 자아를 사용하지 못하여 학교에서 자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분화되지 못한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의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활동과 상담적 개입을 통해 학교적응을 촉진하고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학교적응 관련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고찰과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전환기에 있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점차 감소하는 변화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이 높고, 부모의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부모-자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대규모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적응의 변화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했다는 데 있다. 또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성별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의 감독, 부모-자녀관계의 부모 및 가족 요인의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맥락을 파악한 점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변인이 학교적응과 부적응에 보호 혹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고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변화양상과 관련된 예측변인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만으로 학교적응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개인적 요인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부모 및 가족 요인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속성 또한 변화하는 시변변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방법과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강태신, 임영식, 이수정 (2008). 비행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수준에 따른 외현화 문제. **미래청소년학회**, 5(1), 163-182.
- 김연홍, 성경주 (2014).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2(1), 103-126.
- 김정민, 송수지 (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209-234.
- 김재철, 최지영 (2010).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1), 123-147.
- 김태균 (2008). 학교적응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자아통제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69-188.
- 김종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종운, 최미숙 (2014).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2(1), 201-226.
- 권재기, 정미경 (2012). 학령후기 학교적응 프로파일과 관련된 개인·가정환경 변인의 단기 종단적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하여. **아동교육**, 21(3), 147-167.
-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 노언경, 홍세희 (2010).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우울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성별, 관계 친밀도와 관련성 검증. **교육방법연구**, 22(2), 91-110.
- 문수백 (2013).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은식 (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3), 349-369.

-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성혜, 윤종희 (2013).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은영 (2011).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6), 1-27.
- 박정현, 이미숙 (2014).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45-63.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서미정 (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 신형진, 김규원 (2014). 가정환경 발달사향의 시계열 변화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1), 85-106.
- 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 (1998).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사업실천모델 연구. **학교사회사업**, 1(1), 179-223.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2), 131-155.
- 이명순, 김중운 (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335-356.
- 이지언, 정익중, 백종립 (2014).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Korean J. of Child Studies**, 35(2), 1-23.
-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희은,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62-174.

- 이희정 (2015). 도시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예측변인. **교육문화연구**, 21(2), 27-56.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탐색. **청소년연구**, 17(2), 253-278.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영향요인-위험요인에 대한 학교 보호요인의 매개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유순화 (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0), 355-375.
- 유인선 (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 요인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숙경, 문혁준 (2009).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7), 59-71.
- 엄선영, 이강이 (2012). 중학교 진학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환경 지각과 학교적응.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3), 89-100.
- 조미형, 이정은 (2008). 고등학교로의 진학과정에서 학교적응변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2), 63-86.
- 조호운, 서수현, 이승희, 김재철 (2014).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적응 간의 자기회귀교차 지연 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 3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제 7주제 정서발달**, 500-518.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 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정현희 (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1(2), 26-36.
- 좌현숙 (2010).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의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 좌현숙, 오승환 (2011). 내재화 문제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성별차이. **청소년**

- 복지연구, 13(4), 119-147.
- 최수미, 김수현, 조영일 (2012).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내적증상 관계에서 정서 조절의 매개효과에 관한 5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3(3), 1277-1293.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 1차~5차 조사 데이터 코드북**.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신애, 문수백 (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 유아교육학회지*, 18(3), 355-376.
- 황성혜 (2010).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발달체적 연구-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7(4), 211-239.
- Akos, P. (2002). Student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5(Issue 5), 339-354.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ist, K. L., Dekovic', M., Meeus, W., & van Aken, M. A. G.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7(3), 251-266.
- Chung, H., Elias, M., & Schneider, K. (1998). Pattern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1), 83-101.
- Crosnoe, R., & Elder, G. H. (2004). Family dynamic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educational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5(5), 22-34.
- Danielsen, A. G.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18.
- Dekker, M. C., Ferdinand, R. F., van Lang, N. D. J., Bongers, I. L., Ende, J., & Verhulst, F. C.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 from early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and adult outc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7), 657-666.
- Diemert, A. (1992). *A needs assessment of fifth grade students in a middle school*(ED362 332). Acton, AM: Author.
- Fenzel, L. M. (2000). Prospective study of changes in global self-worth and strain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93-116.
- Flöjd, S. A., Nissinen, E. S., Pelkonen, M. U., Martunnen, M. J., Koivisto, A. M., & Kaltiala-Heio, R. (2008). Depress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Adolescence*, 31(4), 485-498.
- Ge, X., Conger, R. D., & Elder Jr, G. H. (2001). Pubertal transition,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Developmental Psychology*, 37(3), 404-417.
- Gilliom, M., & Shaw, D. S. (2004). Codevelopment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1), 313-333.
- Keily, M. K., Bates, J., Dodge, K. A., & Pettit, G. (2000). A cross-domain growth analysi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during 8 years of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61-179.
- Laird, R. D., Jordan, K. Y.,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01). Peer rejection in childhood,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in early adolescence and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2), 337-354.
-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3). Change in parents' monitoring knowledge: Links with 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 beliefs, and anti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12(3), 401-419.
- Midgley, C. M. (2002).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ive learning*. Mahwah, NJ: Erlbaum.

- Millings, A., Buck, R., Montgomery, A., Spears, M., & Stallard, P. (2012). School connectednes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35(4), 1061-1067.
- Patterson, G. R., & Capaldi, D. M. (1990). A mediational model for boys' depressed mood. In J. e. Rolf, & A. S. Masten(Eds.), *Risk and protev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y*(pp. 141-16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ddy, R., Rohdes, J., & Mulhall, P. (2003). The influence of teacher support on student adjustment in the middle years: A latent growth curve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19-138.
- Reichman, J. M., Bowen, G. L., & Woolley, M. E. (2004). School failure: An ecological-interactional-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W.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2nd ed.). Washington, DC: NASW Press.
- Roeser, R. W., Eccles, J. S., & Sameroff, A. J. (2000). School as a contex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5), 443-471.
- Roeser, R. W., Marachi, R., & Gelhbach, H. (2002). A goal theory perspective 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ies and the contexts of teaching. In C. M. Midgley(Ed.), *Goals, goal structures, and patterns of adaptative learning* (pp. 205-241). Mahwah, NJ: Erlbaum.
- Schonert-Reichl, K. A., & Muller, J. R. (1996).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6), 705-732.
- Schumacher, D. (1998).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Report No. EDO-PS-98-6). Washington, D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22119).
- Vieno, A., & Nation, M. (2009). Parenting and antisocial behavior: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elf-disclosure, parental closeness,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509-1519.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Lee, Youngae* · Chung, Hyunhee*

This five year longitudinal study, using data from 4th grade elementary to 2nd grade middle school years, sought to track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Korean students' school adjustment. The data,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 elementary school 4th-grade cohort's through 5th year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 Our study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predictive variables including gender, ego-resiliency,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parental behavior control,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Our results support the notion that school adjustment decreases in a linear manner in early adolescence from 4th elementary school years to 2nd middle school years. The results also demonstrate that gender, ego-resiliency, internalizing problem, externalizing problem, parental behavior control,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mpact upon the intercept in a significant manner, but gender, ego-resiliency, internalizing problem,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fluenced the slop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school adjustment, latent growth curve model, ego-resiliency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투고일: 2015. 12. 14, 심사일: 2016. 3. 14, 심사완료일: 2016. 3. 21

* Keimyung University